



좋은 친구

FRIENDS

2022. 7.
Vol.013

사단법인 프렌즈는 2006년 오륜교회의 뜻있는 분들이 심은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국제구호개발NGO로 성장하였습니다.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촌 17개국 28개 사업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지이야기]



1.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세네갈 북부 칠레부비카르 구멜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위한 태양광 펌프가 설치되던 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2. 공동텃밭을 가꾸고 있는 구멜 지역 주민들의 밝은 모습. 깨끗한 물은 마을 전체에 파릇파릇한 생명을 불어 넣어주며 삶의 소망과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반기간 <좋은친구 FRIENDS> vol.013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발행정보 제13호

발행일 2022년 7월 31일

발행인 김은호

기획편집 (사)프렌즈 대외협력팀

주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전화 02-483-5007

E-MAIL friends@hifriends.or.kr

Facebook hifriends153 / 검색 '사단법인프렌즈'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김은호(오륜교회 담임목사)

이사 김명진(크리스탈치과 원장), 김정섭(주식회사 토비야스 이사),
신현수(코모케이비인후과 원장), 윤송철(시카고치과 원장)

감사 마철현(세무법인 민화 대표 세무사) *이사장 이하 가나다 순



2022년 1월 1일~6월 30일 신규 후원자분들입니다.

개인 강신해 강지석 고은정 김경래 김명용 김빛나리 김성은 김소라 모선화 문해찬 민은진 박윤규 박지원 방형우 송주영 신영도 심봉희 양주성 유하민 이봄이랑 이성민 이 혁 임은정 전은영 조재민 조하영 최명진 (로템치과) 최미연 최윤철 최중균 최현정 한구재 홍승훈

단체 (주)기독교복음방송 (주)나노소프트 대한 라키라키코리아 (주)백년화편 (주)아이엠오 오륜교회초등4학년 1부15반 오륜사모회 온스타일치과기공소 팔복시스템호남지사

프렌즈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ONTENTS

- 04 인사말
윤송철 (사)프렌즈 이사
- 05 해외사업 '하나'
프렌즈, 온자라마(on njaaraama)!!
- 08 해외사업 '둘'
사랑은 허비되지 않는다
- 12 해외사업 '셋'
위기의 스리랑카가 보내는 긴급 타전
- 14 해외사업 '넷'
빛이 되어, 빛을 나누는 사람들
- 16 국내사업 '하나'
'당연한 일상'을 찾아가는 길
- 18 후원자스토리
후원을 통해 하나 된 우리 가족,
그리고 함께 이어갈 소중한 꿈
- 20 헨즈온소식
•곰돌이와 바둑이의 새 친구가
생겼어요!
•우와! 손을 씻으면 장난감이
생겨요~
- 22 프렌즈 News
2022 프렌즈 상반기

우리는 지난 3년간, 직접 사람을 만나 차를 마시며, 지난 추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일상적인 것들이 결코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그동안 평범하게 누려왔던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만남과 모임이 영상으로 이뤄지고, 미디어와 통신, IT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메타버스'라는 신개념의 가상세계까지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촌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이 가속화되고, 친밀감과 유대감은 점점 사라져, 자기중심적 세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에 처음에의 놀라움과 분노가 점점 무뎠어지듯 말입니다.



제게는 어릴 때 앓은 결핵의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하신 고모가 계십니다. 고모는 6.25 전쟁 직전 온 가족과 함께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얼마 전

출간하신 자서전에는 밤에 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안내자가 "멀쩡한 사람도 힘든데 다리를 못 쓰는 이 아이는 못 데리고 간다" 했으나, 할머니께서 남한 정착에 도움이 될 만한 귀한 짐들을 다 버리고, 당신이 업고서라도 가겠다 하여 어렵사리 산을 넘고 간신히 임진강을 건너온 영화 같은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 후 고모는 가족들의 헌신으로 적극적인 치료와 후원을 받아 미국 유학을 가셨고, 그곳에서 바이올리니스트와 음악 선생님이로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가족들과 외지 땅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기 위해, 팔십을 넘겨 은퇴하신 후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시며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 **윤승철**

이번에 선천성 발목 기형으로 고생하던 메일린이 프렌즈의 후원으로 한국에 와서 수술받고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욱 남다르게 느껴졌던 이유가 제 고모가 생각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처럼 생각하니 메일린의 수술 결과를 더욱 마음 졸이며 기다렸고, 재활 과정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숨바섬에는 메일린과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중에 하나인 그 아이의 선택적 수술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족처럼 사랑을 갖고 그 아이의 인생을 미리 투영해보면 받은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평생을 숨바섬에서, 아니 세계 어디에선가 열심히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제2의 우리 고모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과 친밀함 속에 사랑이라는 향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길 원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느끼며, 어서 속히 이 코로나 팬데믹도 종식되길 함께 소망합니다.



프렌즈, 온자라마!! (on njaaraama*)

* on njaaraama : 폴라종족어로 '감사해요'



1 설치된 우물의 모습
2 태양광 패널 앞에 선 주민들

물은 생명입니다.

세네갈 사업장이 있는 칠레부바카르 마을은 자체적으로 강 물을 끌어 저장한 뒤, 마을 전체에 공급하여 사용하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구멜 지역은 강물이 저장되는 곳보다 지대가 높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더운 날이나 저장된 물이 적을 때면 물 공급이 자주 중단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길게는 한 달 넘게 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당나귀 등의 마차를 끌고 먼 강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렌즈로부터 우물 후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뭄에 단비처럼 너무나 반갑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현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마을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 태양광 펌프를 설치하여 얻어진 지하수를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나누어 공동수도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해 마을의 공동텃밭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부지가 필요했는데 감사하게도 마을 촌장으로부터 1.5ha의 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추작업

을 시작했더니 약 30m 정도 되는 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곳에 태양광 패널과 펌프를 설치한 후, 농사를 위한 2개의 수조를 만들고, 생활용수 저장을 위한 물탱크와 공동수도꼭지를 설치했습니다. 이로써 물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위해 5가정을 선발했습니다. 첫 시범 농사로 심은 수박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익도 얻었습니다. 희망을 안고, 두 번째 모종을 심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힘들게 심은 모종을 야생동물들이 모두 먹어 치웠고, 모래 열풍과 병충해로 밭이 황량하게 변했던 것입니다. 외부 도움 없이 주민 스스로 주도하고 꾸려나가는 텃밭을 운영하고자 했기에 힘들었지만, 저희는 계속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 격려해주었습니다.

짐통같은 무더위 속에서 텃밭에 참여한 여성들은 집에서 가져온 천 조각과 모기장으로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



1 농사가 시작된 텃밭
2 오토바이를 선물 받은 알리의 아버지

슬픔 뒤에 찾아온 희망

작년, 아동결연을 기다리던 ‘알리 리’를 기억하시나요? 친구들과 강에 갔다가 익사해 짧은 생을 마친 알리. 알리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경제 활동을 못해 가족들은 친척 집의 방 한 칸을 얻어 살며, 이웃들이 주는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매우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알리는 언제나 환히 웃으며 아버지의 눈이 되어 주었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다고 밝게 웃는 알리의 손을 잡고, 아들의 얼굴을 향해 함께 웃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눈과 희망이 되어 주던 아들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 안타까운 가정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장기적인 도움이 되는 선물을 고민하던 중, 오토바이 대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차량이 부족한 마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오토바이를 몇 시간 또는 며칠간 대여해 주고 그에 맞는 금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대여업은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를 지원해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대신, 매주 일주일간의 수입 중 한국 돈 약 1만 원 정도를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제안했습니다. 그 상환금으로는 새 오토바이를 구입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까 의심도 했지만, 그런 의심이 미안할 만큼 첫 주부터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센터로 찾아와 직접 약속한 금액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토바이 금액의 약 40% 정도가 상환되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아버지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물론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하지만) 센터로 들어오는 아버지의 표정이 어찌나 밝고 자신감에 차 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간 번 수입에서 상환금을 뺀 나머지 비용으로 가족들이 생활하게 되었으니까요. 슬픔을 딛고, 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아버지가 보는 세상은 어떠한 색으로 바뀌었을까 궁금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 철조망 담장 아래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가지 모종을 심고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50도가 넘는, 1년 중 가장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었지만, 주민들은 최선을 다해 가꾸었고, 마침내 가지가 열렸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물은 생명을 길러내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량한 모래바람이 가득한 땅에서 푸른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곳에 생명과도 같은 물을 선물해주신 프렌즈 가족들께, 특히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안암제일교회(담임목사 김명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알리의 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을 응원해주세요!

89개의 소중한 이야기

현재 세네갈 사업장에서는 89명의 아동들이 결연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아동 추천을 위해 지역 내 가정들을 조사하며, 선발 기준을 정할 때였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하려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 안된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출생신고 서류가 있는 아동들을 선발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알렸더니, 자발적으로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아동결연은 시작부터 이 지역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 아픈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울곤 합니다. 저희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아이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슬프거나 아프고, 고통스럽기까지 했지만, 결연을 계기로 아이들의 이야기가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인생 이야기의 소중한 페이지가 ‘결연’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 조사

언제부터가 결연 아동의 어머니들이 조를 만들어 센터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행사가 있는 날에는 자발적으로 음식을 만들고 봉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나누던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보고는 집에서 하듯 편하게(?) 음식을 주다가 “아이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정성을 다해 나눠달라”는 말에 언제 그랬냐는 듯, 급히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고 한바탕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결연이 부모와 가정의 변화도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다가 문득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책 한 권, 흔한 학용품조차 제대로 사용해본 적 없는 아이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하며 뭔가를 해낼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로 잘하는구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지 가능성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에 이들을 이제야 찾아온 것이 미안해지기까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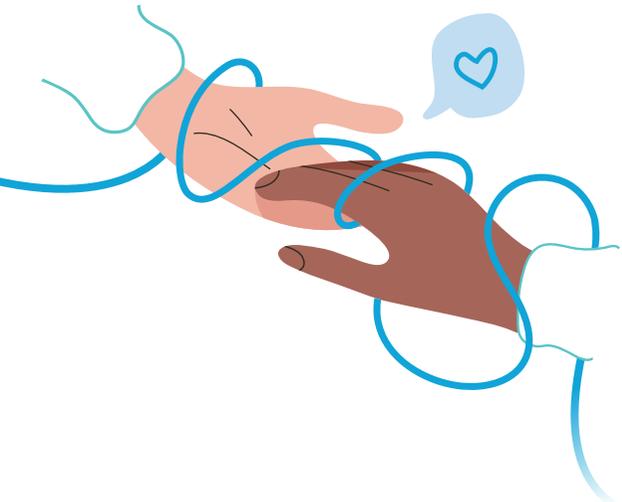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기회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넓은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그렇게 떠나볼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고민하며,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제 삶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여정을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AVEC센터 아동

사랑은 허비되지 않는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물건 또는 어떤 일에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해 보셨나요? '핑크스타'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보석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중 하나인 이것은 2013년 소더비 경매에서 8,300만 달러에 판매되었는데 현재의 원화 가치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무려 1,050억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혹시 지금 1,050억 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보석 하나를 사기 위해 그 돈을 모두 지불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현실감 없는(?) 보석 이야기는 접고, 한 아이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숨바섬에서 살고 있는 꼬마 숙녀, '메일린'의 이야기입니다.

메일린을 만나다

2019년 7월, 프렌즈 의료봉사단이 숨바섬에서 처음 메일린을 만났습니다. 당시 4살이었던 메일린은 '선천성 발목 기형'으로 오른쪽 발목이 완전히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숨바섬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가난한 형편으로 최소한의 진료조차 받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발목 기형이 고착되어 영구 장애로 남게 될 것을 걱정한 현지 책임자가 숨바섬을 방문한 의료봉사단에게 메일린을 의뢰하였고, 단원 중 한 명이었던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동의 상태를 보고, 소아정형외과에서 오른쪽 발 아킬레스 근육을 이완시키는 수술을 하면 지금보다 수월하게 걸을 수 있으며, 돌아간 발목도 어느 정도 원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견을 주었습니다.

그 소견을 토대로 아이의 수술을 위해 발리, 자카르타 등 여러 병원을 수소문하였지만, 현지 의료 기술로는 아동의 발목 교정이 어렵고,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소아정형외과가 없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린 아동을 위한 세심한 접근도 어려웠습니다.

2019년 11월, 현지에서 보내온 아동의 엑스레이 사진과 진료확인서, 동영상으로 서울아산병원 소아정형외과에서 논의한 결과, 수술이 가능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 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재활 치료를 받고, 현지에서 보조기구 착용과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메일린의 처음 발목 상태



힘난한 한국행

그런데 아이의 한국행을 추진하려니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초, 출생신고부터 마치고, 여권을 만들어 마침내 한국으로 떠날 날만 기다리던 그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당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던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장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닌 이상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한다는 지침을 내렸고, 힘들게 준비한 한국행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숨바섬은 사이클론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아이사는 마을 또한 큰 수해를 입어 고립된 채 연락이 닿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간신히 고립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메일린을 보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것처럼 길어줄 줄은 아무도 몰랐기에, 3~4개월 단위로 아이의 수술 일정을 연기할 수 차례, 그러다가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속 방치될 경우, 척추와 골반 등에 2차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한국행을 추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조심스럽고, 의료관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시기였지만, 아이의 상황을 배려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의 협력 덕분에 극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손길

4월 11일, 드디어 메일린과 엄마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이라는 위기가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 감사하게도 아무런 증상 없이 잘 회복되었고, 입원 전 검사를 거쳐 4월 22일, 예정된 수술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겪는 힘든 수술과 입원이었지만, 메일린은 밝고 씩씩하게 잘 견뎌주었고, 감사하게도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메일린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기까지 수많은 숨은 천사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선 '다니엘기도회 사랑의현금'이 기적의 첫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들



- 1 환영해! 메일린~
- 2 따뜻한 인사로 맞이한 숙소
- 3 기다리던 수술을 받은 날
- 4 수술 후 곧게 펴진 메일린의 발

고 기금 마련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곳이 '사랑의헌금'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메일린을 돌봐주고 치료해준 서울아산병원 소아정형외과 박윤해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개월의 체류 기간 동안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무료로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오륜교회의 사랑도 잊을 수 없습니다. 따뜻한 환영 메시지와 함께 세심하게 준비해주신 물품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5월 4일은 메일린의 생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또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왕가의 아이들'에서 메일린의 생일잔치를 맡아 주었습니다. 메일린과 아이들의 예쁜 마음을 응원하기 위해서, 마술사 함현진 선생님께서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흔쾌히 오셔서 재능기부로 마술 공연을 해주신 덕분에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월 16일에는 고대하던 후원자와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한 명철 후원자님은 2020년 7월부터 메일린을 후원해 왔는데 이번 방문으로 한국에서 후원자와 결연 아동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일린을 위해서 '엘사'가 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유튜버 '라키라키코리아'에서 메일린의 소식을 듣고 영상 조회 수 기부와 응원 댓글로 힘이 되어 주었으며, 엘사로 직접 변장해 아이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나시고랭(인도네시아식 볶음밥)을 그리워하는 아이와 엄마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놀이동산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프렌즈 장학생인 인도네시아 유학생들도 매주 찾아와 친구가 되어 주었고, 고궁 나들이로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1 고궁나들이
2 결연 후원자와의 뜻깊은 만남



처음 보는 신기한 마술쇼



엘사가 된 라키라키코리아 오빠들과 함께



한국 마마&파파와 함께

마마, 파파 사랑해요

메일린의 한국행을 추진하고, 한국에서 머무는 긴 시간동안 헌신적으로 아이와 엄마를 돌봐준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사업장에서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함춘환, 김성혜 활동가입니다. 메일린은 두 분을 마마, 파파로 부르며 따릅니다. 낯선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두 분은 24시간 메일린 모녀와 함께 지내면서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보호자로, 또 함께 울고 웃는 친구이자 가족으로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메일린은 한국 마마, 파파를 통해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 마마, 파파는 아이의 다리를 고친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아이의 꿈이 생긴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이는 탄탄한 다리와 함께 탄탄한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6월 15일, 메일린은 한국을 떠나 숨바로 떠났습니다. 좋은 수술 결과와 빠른 회복으로 예정된 일정보다 약 20일을 앞당겨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메일린의 한국행을 다시 준비하던 시기,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환자의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를 담당하던 대형병원의 관련 부서나 지원 혜택들이 대부분 축소되어 모든 치료비를 100% 자부

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치료비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3배 이상으로 불어났고,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금액을 10배 정도 상회하는 높은 금액의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기형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했지만, 과연 이 정도의 높은 비용으로 아이를 초청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NGO의 활동에는 효율이 중요합니다. 후원금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격으로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는 메일린의 엄마를 보면서 이번 선택이 한 아이의 인생을 위해 꼭 필요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제 아이를 위해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네요. 아이가 수술받던 날, 가족과 마을 사람들 모두 함께 모여서 제 전화만 오길 기다렸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에 모두 너무나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1,050억 원이라는 거금이 생긴다면, 핑크스타와 같이 값비싼 보석을 사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라면 그보다 훨씬 더 값진 한 아이의 인생, 한 아이의 미래를 선물하는 일에 그 돈을 쓰고 싶습니다.

메일린은 한국에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기회와 경험을 얻었습니다. 한 아이를 향한 수많은 기도와 격려는 메일린을 넘어 숨바섬과 고통받는 또 다른 어린 영혼들을 향해 이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허비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렇게 저희는 또 한 번 사랑을 배워갑니다.

위기의 스리랑카가 보내는 긴급 타전



국가 부도 사태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70여 년 만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9년 발생한 부활절 테러와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력 산업인 관광 산업이 붕괴하였고, 잘못된 정부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악재가 반복된 것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2022년 4월 12일 대외 채무 상황 일시 중지, 즉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고, 5월 18일부터는 기한 내에 국채 이자와 중국 관련 채무(20%)를 갚지 못하면서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식량 위기

디폴트를 맞은 스리랑카에서는 외화가 바닥나자 연료와 식품, 의약품 등 필수 물자 구입도 어려워졌습니다. 자국 내 심각한 인플레이션(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으로 인해 식량 수급이 급속도로 악화됐는데, 지난 4월 스리랑카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는 기후가 좋고 비교적 비옥한 땅이 있어 삼모작이 가능한 곳이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위력을 떨친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비료가 수입되지 않아 농사조차 짓지 못하고 쌀을 구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석탄과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루 최대 13시간의 계획 정전을 하기도 했으며, 종이와 잉크가 없어 학교 시험을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6월 28일부터는 학교의 문을 닫고, 보건, 대중교통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연료 판매를 2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굶주림과 생활고에 시달린 스리랑카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의 나라들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이 어려운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공급 감소,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경제위기에 취약한 다른 저소득국가들 또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는 대륙을 막론하고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IMF(국제통화기금)은 개도국을 비롯한 저소득국가 73개국 중 56%에 해당하는 41개국이 심각한 부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IMF에 구제 요청을 하고, 부채 구조 조정에 들어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75만 명이 기아, 사망, 빈곤, 극심한 영양실조 등 식량안보 재앙에 직면해 있고,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예멘을 식량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곳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구호는 축소되어 더 악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농장과 함께 일귀가는 꿈

사실, 스리랑카 사업장은 국가 부도 사태 이전부터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하나가 바로 '푸떨럼, 케키라워 농장'입니다.

농장의 첫 번째 목적은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쌀농사를 짓고, 콩과 채소, 코코넛과 캐슈넛, 망고나무를 심으며 닭과 염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농장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숙식 시설을 갖춘 농업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는 전문농업학교가 거의 없어 체계화된 농업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초기 자본 또한 부족하여 장비나 시설도 갖추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풍부한 천연자원과 비옥한 땅이 있어도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할 수 있는 농업학교를 만들고, 교육 후 수료생들이 농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초기 자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2, 3년은 초기 투입 비용과 유지비가 들겠지만, 그 이후로는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학교를 운영,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도모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에, 매년 3개 이상의 농장을 지역사회에 여는 것을 목표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7년 풍년 끝에 올 7년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식량을 준비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곳곳에서 식량 문제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요셉의 식량 창고가 떠오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요셉이 많은 생명을 구하고 기근의 위기를 넘긴 것처럼, 저희 또한 굶주림에 처한 이웃들을 살리고, 함께 위기를 넘는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생코끼리

프랜즈는 스리랑카 푸떨럼, 케키라워 농장에 트랙터를 포함한 농기계와 야생코끼리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우물 개발과 아동결연, 교육 비품 및 기자재를 후원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긴급 식량 지원으로 결연아동 243명과 모나라갈라지역 주민 300가정을 위한 쌀, 렌틸콩, 말린 생선 등의 식료품 키트를 배분하였습니다. 스리랑카를 위한 긴급 지원과 농장 및 농업학교 후원에 동참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빛이 되어, 빛을 나누는 사람들

“ 나마스페~
세계의 지붕이 있는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에서 인사드립니다. ”



New Light Blind Center

저희가 운영하는 New Light Blind Center(이하 '센터')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도비갓'이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과 시각 장애 및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아동은 시각 장애인 가정 아동이 70%, 저소득층 아동이 30%를 차지하는데, 이 아동들은 부모가 시각 장애인이거나 경제 능력이 전혀 없는, 네팔 카스트제도 단계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아동들입니다. 네팔 정부가 지정한 시각장애인의 고유직업은 향(네팔의 문화에 따라 필요하고 주로 일반 가게에서 사용함)을 파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돌보는 부모가 없이 방치된 자녀들을 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센터의 지원을 받기 전에는 교육, 의료 등 각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꿈이 없이 채소를 팔거나,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있었습니다.

네팔의 공립학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가난한 아동들만 다니고, 사립학교와는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 1층에는 시각 장애인 가정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2층에는 방과후 공부방이 있어, 현재 2명의 교사가 시각 장애 아동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두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었지만, 이제는 프렌즈 아동결연을 통해 수준있는 사립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을 마친 이후에는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 간식을 먹고, 숙제를 하거나 개인 지도가 필요한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도 하고, 자신들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센터 아동들은 문화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에, 분기별로 놀이동산과 수목원, 동물원 등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회성을 길러주며, 자신감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동들이 스스로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힘든 사람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 흐뭇하고 대견합니다.

네팔은 영국식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따로 교육하지 않고, 몇 개 학교를 지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교육하는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달샤 공립학교는 시각 장애인 호스텔이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 프로그램에 14명의 시각장애 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흰 지팡이 사용법과 영어, 악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도 아동결연이 진행되고 있어, 학교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크리스



센터 아동 중 결연 후원을 받는 '크리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에서는 약 80년을 주기로 찾아오는 대지진이 발생했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가족과 집을 잃어 버리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처음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 가족이 '크리스' 가족입니다. 집은 모두 무너졌고 갈 곳이 없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비장애인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중도 실명)이었고, 자녀는 크리스를 비롯해 4남매(3녀 1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 크리스는 당시에 영양 공급이 부족하여 아직 걷지 못하는 매우 약한 상태였고, 크리스의 누나들은 지진의 영향으로 매일 두려움에 떠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으면 주저앉아 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센터에서 지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아동들을 위한 음악,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크리스는 노래와 댄스, 그림 그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크리스 4남매가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안정을 찾고,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크리스 가족은 다행히 센터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방한 개를 얻고, 엄마는 직장을 얻어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으며 누나들은 공립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 마련한 시각 장애인 가정을 위한 주택이 생기자 크리스 가족이 가장 먼저 입주하게 되었고, 현재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크리스는 시각장애인 아빠를 잘 돕고, 누나들을 따르는 막내로서,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성실한 학생으로 생활

하고 있습니다. 대지진이라는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났지만, 지금까지 밝고 건강하게 자라며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생으로 집에서는 막내지만, 시각 장애 아동들이 거주하는 베데스다하우스에는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특하게도 요즘은 형이나 오빠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가족들의 대부분은 앞을 볼 수 없지만, 저희들에게 사랑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조금씩 어둠을 뚫고, 서로에게 빛이 되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네팔과 시각장애인 가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도 항상 프렌즈와 모든 후원자님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방과 후 공부방의 모습



네팔 사업장은 '장애인에 특화된 사업장'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현지 책임자로 활동하는 손원석, 장소영 활동가 부부의 헌신이 깃들어 있으며, 특히 손원석 활동가는 중도 실명한 시각 장애인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과, 시각 장애인들의 가장 친근한 친구이자 버팀목으로 이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에서 오는 모든 소식이 다 반갑고 소중하지만, 특히 손원석 활동가가 매년 보내오는 자필 인사는 항상 저희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상'을 찾아가는 길 〈난민 여성 글로리아의 두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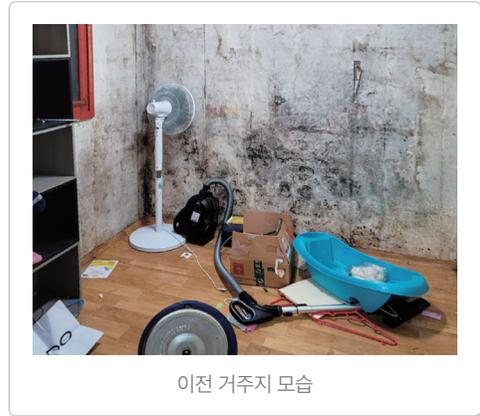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저녁에 먹는 샌드위치, 전화할 수 있는 친구,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 잠깐 멈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옆에 있는 많은 것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국가에서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고 법의 보호 아래 '나'로서 살아가는 삶, 때가 되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자 한다면 일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여권을 들고 떠나는 여행, 이런 것들은 누군가는 간절히 꿈꾸지만 아직은 갖지 못한 평범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글로리아(가명), A국에서 위협을 피해 낯선 한국으로 탈출하여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기억하시나요? 프렌즈에서 처음 글로리아를 만난 이후로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받기까지 길게는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난 1년은 난민인정을 받기에는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불씨가 꺼져가던 장작불에 희망이라는 불쏘시개 하나를 올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살던 터전에서 떠나 한국으로 오기까지, 그 과정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만 하면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국이 새로운 터전이 되기까지의 이 과정도 쉽지않은 않습니다. 난민인정 자격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더욱 삶이 고달프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폐렴으로 아파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거나, 방 한구석에 고지서가 겹겹이 쌓여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현실이 주는 압박감에 잠 못 이루고 홀로 울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본인을 돕는 사람들을 보며 감사에 벅찬 날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3개월 체류 기간 연장이 되었지만,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은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기각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외부기금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일부와 생계비 지원을 받고, 햇빛이 방 한가운데까지 한가득 드는 집으로 이사했던 정말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이전 거주지 모습



새로운 거주지 모습

2022년 6월 중순, 연장됐던 3개월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던 어느 날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약 한 달 만에 다시 본 글로리아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가득했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트릴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Are you okay?"라는 한마디에 주체할 틈도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보면서 다시금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를 마주했습니다.

참 다행히도 출국기한유예 허가를 받아 다시 3개월 동안 안전하게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세 번째로 난민인정 신청을 함으로써, 다시금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취업 불가'가 선명히 찍힌 3개월짜리 체류 허가증으로 현재 생계를 위해 직업을 구할 수는 없지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자립하여 스스로 살아가도록 계획을 하나씩 마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올라야 할 산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옆 동산을, 누군가는 히말라야를 넘어야 하겠죠.



글로리아와 프렌즈

글로리아가 한국에서 아이와 같이 오르고 있는 저 산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자녀와 함께 오르는 저 길이 너무 거칠고 험난하지 않기를, 혹은 고지가 보이지 않아 중간에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글로리아를 돕고자 합니다. 가다가 배고플 때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을 채워주고, 비바람을 막을 외투를 들려 보냅니다. 또, 텐트 치는 방법을 알려주고, 오르다 갑자기 만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당연'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마땅히 그러할 일상'이 글로리아 모자에게도 하루속히 찾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당연한 하루가 되는 그날까지, 마음을 합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로의 이사, 한국 체류 기한 연장, 소송 기각과 또 한 번의 난민인정 신청 등', 지난 1년 동안 느린 걸음이지만 함께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두드러지는 변화나 결과가 없는 것 같아 막막함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린 걸음으로 함께한 우리들은 어느새 서로에게 서서히 스며들어 '친구'가 되었고, 우리의 희망은 날로 두터워져 갑니다.

여러분들도 글로리아의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후원을 통해 하나 된 우리 가족, 그리고 함께 이어갈 소중한 꿈



프렌즈 1:1 아동결연 후원자 중에는 가족이 함께 나눔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한 가족이 34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민경위&홍경숙 후원자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위, 홍경숙 후원자입니다. 둘째 딸 은경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프렌즈를 통해 가족이 함께 귀한 섬김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프렌즈의 다양한 후원 중에서도 1:1 아동결연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2018년, 인도 람강가로 해외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그때 인도 아이들 가정을 방문했거든요. 너무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느꼈고, 수줍어하면서도 우리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보며, 환경은 다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기도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프렌즈 아동결연이었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셨군요! 더 놀라운 것은 가족 모두가 프렌즈 아동결연 후원자이신데, 다섯 분이서 총 34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 모두 후원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홍경숙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했어요. 나의 환경과 형편으로는 직접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아동결연을 통해 후원받은 아이들이 소중한 만남을 경험하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서 가정과 마을이 변하고, 해당 국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작은 후원이지만 이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민경위 저는 아내의 권유로 아동 후원을 시작하였는데, 아동 후원을 통해 우리 가족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은진 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한국에 잠깐 오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수술과 항암치료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 크신 사랑에 우리 가족이 함께 선을 이루어가자는 부모님의 제안으로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후원받은 아이들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민은경 작년 오륜교회에서 진행한 다니엘기도회에서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후원자가 없어 힘들게 지냈지만 결국 좋은 후원자를 만나 멋있게 성장했고, 범사에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주인공이 된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의 아동 후원 제안에 바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의 소망이자 목표(아동 후원 100명)였지만, 이제는 저희 가족 모두의 사명이자 목표가 되었고,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더 아름답고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화평 사실 저는 아동 후원에 대한 큰 생각을 한 적은 없었지만, 엄마가 후원을 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젠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결제를 한 후에 "이렇게 하려고 돈 번다"고 장난으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엄마는 "돈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려고 버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처음에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엄마의 그 말씀이 큰 울림이 되었고, 아동 후원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큰 비용도 아니지만, 시작 전에는 부담으로만 느껴졌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 휴대폰으로 출금 알림이 올 때마다 즐거워요~ 많은 분들이 이 알림을 받으시고, 함께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금 알림에 즐거움을 느끼신다니, 저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시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후원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아동 성장보고서를 받았을 때 너무나 예쁘고, 씩씩하게 자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인도 아이의 편지에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고 싶고,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는 글을 읽었어요. 그 아이가 꼭 원하는 바를 이루어서 인도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 그 땅이 회복되기를 함께 마음으로 응원했던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민경위 후원자님이 항암치료를 받는 중에도 결연을 이어가고 계신데, 결연하고 계시는 여러 해외사업장에서도 응원 메시지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췌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고 막막할 때, 목사님과 지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로 수술 일정을 잡을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직 항암 12차 중에 5차를 진행 중이지만, 담당 선생님께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이 고난을 통하여 가족이 더욱더 하나가 되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아동 후원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도 남은 치료 모두 잘 마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인터뷰가 끝나 가네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 명의 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했듯이, 프렌즈를 통해 만난 아동들도 마음으로 품은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후원할 것이고요, 상황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아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갈 겁니다! 제 가족의 이 꿈을 프렌즈가 함께 만들어 주실 거라 믿어요. 더불어, 아동 후원은 다음 세대를 세워 가는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해요. 나의 작은 후원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아동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후원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시작한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고 '참 잘했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활동가분들과 프렌즈와 함께하는 모든 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곰돌이와 바둑이의 새 친구가 생겼어요! 삐약~삐약~ 병아리의 등장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새싹과 꽃들이
예쁜 얼굴을 빼꼼히 내미는 모습을 보니,
문득 ‘프렌즈 핸드온 필통에도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곰돌이와 바둑이에게 새 친구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봄의 포근함과 잘 어울리는
‘병아리’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봉사자분들이
최대한 어렵지 않게 바느질하실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만들며 테스트를 했었는데,
만들면서 귀여운 병아리의 매력적인 모습이
더욱 빠졌다는 건 안 비밀~^^
여러분도 함께 이 매력에 빠져 보실까요?



"우와! 손을 씻으면 장난감이 생겨요~" 세네갈 아동들을 위한 DHL KOREA 임직원 비누 만들기 봉사활동



장난감이 들어있는 토이비누

작년에 티셔츠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DHL KOREA 임직원들과 비누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활동한 비누는 토이비누였는데,
“토이비누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토이비누’는 투명한 비누 안에 장난감이 들어있어서
손 씻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손씻기에 대한
즐거운 동기부여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DHL KOREA 임직원과 가족의 손길로 완성된 비누는
세네갈 킬레부바카르 지역 초등학교 100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DHL KOREA 후원기금을
통해 ‘위생키트’를 만들었는데, 위생키트에는 임직원
가족이 완성한 토이비누와 함께 현지 마을에서는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손톱깎이, 아이들이 학교에 오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종이비누, 그리고 해열제, 비타민,
구충제, 물 정화제까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위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키트를 받은 아동



뿐만 아니라, 위생키트를 배분하면서 아동 100명과
학부모에게 처음으로 <손은 왜 씻어야 할까?
어떻게 씻을까? 언제 씻어야 할까?>라는 주제의
위생교육을 하였습니다. 물이 부족한 현지에서
최소한의 도구를 갖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고안된
'Tippy Tap' 만드는 방법을 시연하고, 위생 키트
안에 있는 약 복용법과 물품들의 사용 방법을
설명했는데, 평소 위생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위생교육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깨끗이 손 씻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 도구로 사용되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교육받는 모습이 정말 뿌듯하네요.

현지 활동가는 “이번 핸드온 위생키트 덕분에
손 씻기의 중요성과 관련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고,
특히 교육 내용에 있었던 ‘티피 탭(Tippy Tap)’을
만들어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대됩니다. 티피 탭을 사용하는 가정에게
비누를 선물하기로 하여, 활용에 동기 부여가 될 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손 위생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시작은 작은 비누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선물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프렌즈 핸드온은 더 의미 있고 즐거운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2 프렌즈 상반기 News

알만컴퍼니와 업무 협약

2022년 3월 29일, 사단법인 프렌즈(이사장 김은호)와 가치거래플랫폼으로 업계 프론티어로서의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 온 알만컴퍼니(회장 구교성)가 디지털 기부를 통한 나눔 실천 및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NFT,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기부방식의 개발에 협력하게 되며, 그 첫걸음으로 올진 산불 피해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가진단키트 900개를 후원하였고,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NFT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 등에도 활발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기관의 전문성이 한데 힘을 합쳐 아름답고 선한 에너지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왕가의 아이들' 바자회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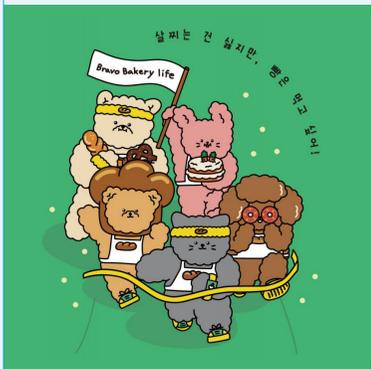


해마다 후원에 동참해온 '왕가의 아이들'(원장 권은혜)에서 어린이 바자회를 통해 926,000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선천성 다리 기형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수술을 받게 된 메일린의 생일축하잔치를 계기로 올해 후원금은 메일린의 수술비를 위해 지정 후원되었습니다. 안구암으로 고통받던 안드레아스를 위한 후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 숨바섬 아동을 위한 의료비 후원에 동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후원금은 어린 친구들이 직접 발로 뛰며 고사리 손으로 만든 후원금이고, 특히 메일린을 뜨겁게 환영하고 사랑해준 친구들의 찼한 응원이 담긴 후원이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해마다 프렌즈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왕가의 아이들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브라보, 베이커리 라이프~! 2022 빵빵런 후원

빵에 진심이지만, 살찌는 건 싫은 이른바 '빵둥이'들의 마라톤, '2022 빵빵런'에서 강동구 지역 아동들을 위한 맛있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주)1986프로덕션(대표 윤명호)이 주최하고 주관한 이 행사는 5월 14일 한강반포공원 예빛섬에서 개최되었고 동시에 비대면으로도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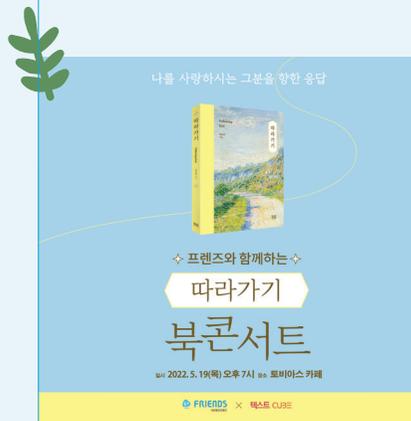
참가자 1인당 1개의 빵 또는 우유, 잼, 쿠키 등을 후원하는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후원 물품(8,026,740원 상당)이 프렌즈에 도착했고, 이 물품은 강동구 1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12개 꿈미소 친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재밌고도 의미있는 기부 캠페인을 준비해 주시고 후원에도 동참해주신 (주)1986프로덕션과 후원기업으로 참여해주신 대한제분(곰표)와 아이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프렌즈와 함께하는 '따라가기' 미니북콘서트

프렌즈 초기부터 함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업장 함춘환 활동가의 저서 <따라가기>가 출간되어, 이를 기념하는 미니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5월 19일, 오륜비전센터 6층 카페 토비아스에서 열린 북콘서트에는 그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과 멘토, 인도네시아 사업을 후원하는 후원자, 의료봉사단 활동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책을 읽고 북활동에 동참하는 독자들 60여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프렌즈와 따라가기를 출판한 '텍스트 CUBE(대표 김무영)'가 함께 개최한 행사에서 함춘환, 김성혜 활동가와 10여년간 숨바 의료봉사단을 인솔해온 프렌즈 신현수 이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그동안의 에피소드를 감동적으로 나누었으며, 간단 퀴즈와 저자사인회로 독자와 소통하고 즐겁게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소리마을지역아동센터 저금통 후원



6월 3일, 천호2동에 위치한 소리마을 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형영, 이하 '센터')에서 저금통 후원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금통 후원에 참여한 센터는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까지 모두 동참하셔서, 무려 1,103,930원이라는 큰 후원금을 보내 주셨는데요, 저금통을 분실한 아이는 종이컵을 사용하기도 하고, 몇 년간 모아온 소중한 돼지저금통까지 내어준 친구도 있어 감동을 주었습니다. 전달식에는 차드사업장의 김혜정 현지 활동가가 직접 방문하여 차드 이야기를 전하고 빵 급식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후원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학부모들께서 전달식 이후 후원 문의를 여러 번 주실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리마을 천사들의 뜻깊은 후원에 감사드리며 후원금은 차드 마하나초등학교 친구들의 배를 '빵빵하게' 채우는데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프렌즈, 글로벌 인플루언서 어워드(GIA) 수상

프렌즈가 글로벌 인플루언서 어워드(Global Influencer Award, 이하 'GIA')에서 2022년 6월, 이달의 인플루언서로 선정되었습니다. GIA는 약 100개국, 700팀의 다국적 인플루언서가 직접 선정하는 영예로운 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머니투데이, 미디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GIA 선정위원회는 프렌즈가 펼쳐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NGO활동이 타의 모범이 되어 상을 통해 고마움을 전달하고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선정 배경을 전했습니다.

프렌즈와 함께 해주시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이 상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귀한 상을 주신 GIA에 감사드립니다. 프렌즈가 국제구호개발의 전문성을 가진 또 다른 의미의 인플루언서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친구 FRIENDS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Tel 02-483-5007 Fax 02-6007-9857 E-mail friends@hifriends.or.kr

www.hifriends.or.kr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사단법인 프렌즈

후원계좌 국민은행 777501-04-111940, 신한은행 100-023-015009